



# AFRICA CONTINENT MISSION

631/587 ST. MICHAEL ROAD, MBABANE · PO BOX 302 MBABANE H100, KINGDOM OF ESWATINI  
TELEPHONE (+268) 2404 4638 · CELL (+268) 7663 6546 / 7825 4097  
EMAIL acmpsw@daum.net

## 존경하는 선교동역자님께

202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도 주안에서 건강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선교사역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에 몇 년 전에 심어놓은 한국산 감나무가지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어린시절 시골집에서 가을이면 새벽마다 흥시감을 주우러 감나무 밑을 자주 찾았던 지난 날의 추억에 잠기어 잠시동안 동심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감의 색깔이 아름다워서 감을 따지 않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파먹기 시작하여 감을 모두 따서 광주리에 담아 흥시가 되도록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현재 중남부아프리카는 겨울철이어서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음바반 (Mbabane)은 높은 곳이어서 밤에는 전기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واتินี 선교센터에서 딴 감을 정리하는 중



감 따는 모습 (선교 센터 전경)

## 남아공화국 임마누엘 신학교

2년여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가 금년부터 1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대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사용하던 목재로 만든 강의실과 채플이 낡아 더 이상 사용이 힘들었는데 금년부터는 튼튼한 벽돌로 새로 아름답게 건축한 건물에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David Fritz 목사님이 임시학장으로 수고하고 있으며 서명호선교사, 김영암선교사, 심성민선교사와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선택된 일부 졸업생들이 신학교 운영과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진학장님은 현재 독일에서 선교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아공화국 정부가 선교사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신학교 채플과 강의실 건물을 건축하여  
헌신한 서선교사 부부



임마누엘 신학교와 선교 농장 전경

## 모잠비크 임마누엘 소망신학교

포르투갈어권인 모잠비크에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현재 14명의 신학생들이 임마누엘 소망신학교에서 수업 받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의 남플라에서 3명, 중부지방 베이라지방과 마푸토(수도)에서 5명, 모두 8명의 신입생이 입학 되고 작년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6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마푸토에 살고 있는 학생들로서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모잠비크 소망 신학교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마누엘 소망신학교 건물을 개조하여 기독교대학 건물로 사용 예정인 조감도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모잠비크 임마누엘 소망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사로 수고하는 모잠비크 목회자들은 모두가 남아공화국의 임마누엘신학교에서 SAT(남아공화국신학대학) 과정을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남아공화국 임마누엘 기도원

젊은 남자 청년들이 가정을 회복시키자는 기도모임을 만들고 매일 정기적으로 임마누엘 기도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추운 날씨인데도 지난 6월 중순 27명의 회원들이 기도원 산꼭대기까지 한 시간 동안 올라가서 밤새 철야기도를 하고 한 시간을 걸어 내려와 잠시 동안 휴식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산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교인들이 기도원에 모이지 않아서 문을 닫는 기도원이 있다고 하는데 1997년 남아공화국에서 인종 차별 할 당시 현지 백인들과 흑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와 집회를 하자는 목적으로 푸무랑가(Mpumalanga)지방 바드플라스(Badplaas)지역에 276,000(230에이커)여평 부지위에 건축한 휴양관을 구입하여 시작한 기도원은 코비드19중에도 금식기도 하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오거나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가끔 학교방학과 휴가철이면 교인들이 모잠비크, 보츠와나, 에스와티니에서 찾아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기도원과 임마누엘 신학교는 거리상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신학생들도 기도하고 기도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기도원 산에서 철야기도하고 내려온 청년들



임마누엘기도원 전경

### 에스와티니(Eswatini) 시포코시니 보건소

2007년부터 시포코시니(Siphocosini) 주민들이 요청하여 설립한 보건소는 매일 100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한국 신창동교회의 심재식 원로목사님의 지원을 받아 건축을 하고 약품과 간호사들은 정부가 지원하는데 요즈음 음바반 정부병원에서 일차 진료 환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여 시포코시니 보건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와티니보사부에서 우리들에게 시포코시니 보건소의 전기, 수도, 화장실등 건물을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벽을 수리중인 시포코시니 보건소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에스와티니 카툰자(Kantunja)기독교초등학교

카툰자기독교초등학교는 2013년 3월에 설립한 학교로 156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골학교인데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 평가시험에서 5년 동안 계속하여 매년 시험에 응시한 전학생들이 합격이 되어 지난 6월 선생님들과 직원 20여 명을 중국식당에 초청하여 식사대접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시골지역에 지어진 학교로서 오랫동안 돌보지 못하여 학교가 많이 망가지고 유리창이 깨져있으며 페인트칠이 벗겨져 수리를 하여야해서 기도하는 중에 필요한 물질을 서옥례전도사님이 보내주셔서 학교가 깨끗하게 단장될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은 여자 분인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이며 학생들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사교성도 좋아서 월드비전으로부터 컴퓨터를 지원받고 정부로부터 교사 사택3동을 건축 후원을 받는 등 외부와 교섭도 잘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식사를 함께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농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 한 칸을 건축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카툰자 초등학교 어린이들



카툰자 초등학교 전경



카툰자 초등학교 교사들과직원들 회식

### 에스와티니 사임기독교고등학교

에스와티니 주재 유럽경제연합대사관, 이 나라의 수도인 음바반시청(Mbabane)과 환경청에서 연합으로 매년 마다 전체 중고등학교를 방문조사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학생들로 건물, 환경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는데 금년 6월에 사임기독교고등학교가 최고의 학교로 선정되어 일간지인 타임지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몇 년째 이 상을 받고 있어서 기독교학교로서 우리들이 설립한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었습니다. 사임기독교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에 반대하여 일부 주민 대표들과 음바반시장, 교장선생님이 연합하여 주민학교로 만들려고 몇 년 동안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등법원에서 ACM선교회가 승소하여 교장선생이 시골고등학교로 좌천되고 현재 시장과 주민대표가 선교회 교회, 에스와티니 기독교와 대학교, 사임기독교고등학교, 선교센터 방문이 금지되고 선교회 비판을 못하게 되자 재판에 불복하여 이들이 최근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임기독교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마부자 교장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학교를 잘 섬기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에 학생들이 사용할 컴퓨터가 없다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임기독교고등학교 전경



사임기독교고등학교 채플에서 금요일 아침 예배

###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교

금년 9월 최초로 의과학생 20명을 모집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웠는데 국회의 도움으로 금년 10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의과를 개설하기 위하여 7억원 가량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건축한 대학교 채플에서 6월 간호학과 38명의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이 채플을

건축하는 중 재정이 부족하여 천정과 바닥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기독교 TV 방송국의 새롭게하소서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출연하여 간증을 한 것을 듣고 한국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1000만원을 입금해 주고 미국에서도 방송을 보았다고 하며 은행으로 1만달러를 보내와서 천정공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적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대학교 정문앞의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 공사와 정문앞과 학교로 진입하는 길목에 두 개의 커다란 대학교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생각지 못한 분들을 사용하시어 에스와티니 기독교와 대학교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MCU 정문 앞에 새운 표지판



EMCU 채플 천정공사 하는 중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천정공사



EMCU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선서식에서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윤춘경총장

저희 부부는 15일 교도청장의 초청을 받아 국가의 교도청 기념일에 국왕이 참석한 행사에 참석하여 교도관 수백명과 군악대가 벌이는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왕과의 만찬자리에서 국왕과의 제일 가까운 자리에 배정이 되어 식사를 함께하며 여러 가지 구경을 하였습니다.



교도청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에스와티니 국왕



교도청 행사에 초청 받아 참석한 김선교사 부부

## 모잠비크 기독교대학교 설립

모잠비크 기독교대학교 설립을 지원받기 위하여 7월 14일(목요일)에 Jorge Henrique 에스와티니 주재 모잠비크 신임대사를 초청하여 우리들이 설립한 음바반시에 건축되어 있는 의학과 실험실, 강의동, 에스와티니기독교과대학교, 사임기독교고등학교, 이시드라교회, 성실고아원의 건물들을 방문시찰하였는데 조지 헨리크 대사님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며 모잠비크에도 같은 수준의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스와티니 주재 모잠비크 대사 부부와 함께



모잠비크 기독교대학교 건축 예정 부지에서 (15헥타)

전쟁중이던 모잠비크에서 1988년부터 저희들이 선교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오랫동안 포르투갈어와 모잠비크 현지어로 설교 통역을 하며 동역을하던 마셀렐라목사님이 7월 17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셀렐라목사님은 1990년 우리들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로부터 큰사랑을 받고 돌아와 당시 대통령이며 친척이었던 치산오 모잠비크대통령을 찾아가서 한국이 미국보다 잘사는 나라라면서 모잠비크정부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끊고 한국과 외교를 개설해야 한다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당시 모잠비크는 공산정부로 북한으로부터 상당수의 군인들이 들어와 전쟁을 지원하던 상황이어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인 레나모군과 정부군이던 켈리모 군 사이에서 내전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잠비크의 위험한 전쟁상황중에서 마셀렐라목사님은 여러지방을 저와 함께 순회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선교사역을 함께 하면서 근래에는 샤사이(Xaixai)지역에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하던 중 몇 개월 전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초 수술비 25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가 기도부탁을 했는데 성모안과병원 장용익박사님과 장예진동역자님, 권병만장로님, 그리고 갤러리세줄화랑(성주영님)의 지원으로 수술을 하고 매주 2차례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두 차례 병원에 재입원과 퇴원하며 순조롭게 회복이 되어 가는듯하여 마음을 놓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려고 기별을 해놓고 있던 중에 주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례식이 있기 전날 7월 18일 목요일 새벽 장례식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장례식 준비를 돕기 위하여 에스와티니에서 모잠비크를 향해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척들, 교인들, 목회자들 약 300여명이 모여서 찬양과 말씀으로 추모하는 중에 전쟁터를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톨라교회에서 장지까지는 1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마셀렐라목사님을 사랑하는 100여명의 현지인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장지까지 동행을 하여 마지막 예배에 참석한후 함께 매장하고 19일 밤늦게 에스와티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잠비크 선교 초창기부터 선교사역을 함께 하던 현지인 목회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남은 마셀렐라목사님이 천국으로 떠나 현재 저희들은 현지인 2세 목회자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ACM 마틀라 교회, 마셀렐라 목사님 장례식  
(김종양 선교사와 통역하는 자이메 목사)



마셀렐라 목사님 장례식에서 찬양하는 여교역자들

저희들은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의 주님의제자교회의 선교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님의제자교회는 저희 딸 김학영전도사가 4년간 사역을 하던 교회여서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저희들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대회 후에는 장신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문성모목사님의 추천으로 전북 김제 금산교회 이자익목회자 수장으로 선정되어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선교를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여 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김종양선교사드림.

### 기도제목

1. 에스와티니는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정부개혁을 주장하는 다른 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몰려와 EMCU 학생대표들과 교수를 경찰앞에서 구타하는 사건이 있어 사무청장과 학생처장을 대동하고 경찰청에 찾아가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경찰이 학교를 못 지켜주면 에스와티니 군사령관이나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였더니 7월 29일(화요일)에 완전무장한 경찰관 43명을 아침부터 학교 안과 밖에 배치하여 정치적인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학교를 지켜주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작은 나라인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금년 9월에 의과학생모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현재 7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1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국립병원과 사립병원, 그리고 기업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의과학생 모집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3. 에스와티니 정부와 ACM선교회의 협약에 의하여 대학교 운영비와 교수, 직원들 분깃은 정부가 지원하고 건물은 우리들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회 모든공사는 마치고 페인트칠과 바닥공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공사를 다 마치고 1000여 명의 학생들과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 행사들과 기도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공사비 2000여 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